

장백산천지

제 193 호

2011 년 6 월 10 일

금요일

유럽최대실외 과학보급전람회에서 환영을 받은 파룬궁



매우 많은 사람들이 파룬궁을 배우고 있다.

폴란드의 저명한 과학기술교류기구인 코페르니쿠스와 텔레비전방송국은 연합하여 소집한 유럽최대 실외과학전람회가 지난 5월 28일에

말살카리자-스키글러고 공원에서 거행되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등 20여개 국가의 과학자와 230여개 과학연구기구, 문화기구, 박물관, 기금회, 대학 등 모두 이 전람회에 참가했는데 그중 파룬따파학회에서 조직한 전람회는 동방의 신기한 고대과학의 기백이 넘쳐났다. 노란 셔츠를 입은 파룬궁학원들이 상서로운 가부좌는 인기를 끌었고 자비로운 음악소리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점점 많이 몰려든 관중들은 호기심이 나서 《이건 어떤 과학입니까? 마음이 매우 편안합니다.》라고 물었다. 파룬궁학원들은 《이건 세상에서 일체 과학중에서 가장 현묘하고 초상적인 과학이며 ‘쩐,싼,런’입니다.》라고 회답했다. 파룬궁 5 조공법을 배우러 온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어 온 하루동안만 해도 2000여명이 넘었다.

일본재해지구에서 공법을 전시



일본재해구인 미야기현 게센누마시에서 지난 5월 29일에 격려회를 소집하여 해일의 재해를 받은 재민을 위문하고 격려했다. 일본화교를 위주로 조직된

파룬궁단체는 이 격려회의 요청을 받고 5 조공법을 전시했다. (윗사진)

파룬궁학원이며 일본 동북대학 교원인 장양이 소개하기를, 《지진과 해일의 재난을 받은후 오늘까지 2개월동안 파룬궁학원들은 중곤 피난소에서 파룬궁을 가르쳤다. 파룬궁을 배운 재민들은 그 효과가 매우 좋았으며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유쾌해졌다. 파룬궁학원들은 파룬궁을 수련하여 몸에 병이 없어졌고 인생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있게 되었으며 적극 향상하고 곤난에 대해 담담히 대하여 정신압력에서 해탈되었다.》

《파룬궁을 관심해야 한다.》

이태리 로마시 제 12구구정부관원과 파룬궁학원들이 지난 6월 1일에 파룬궁에 대한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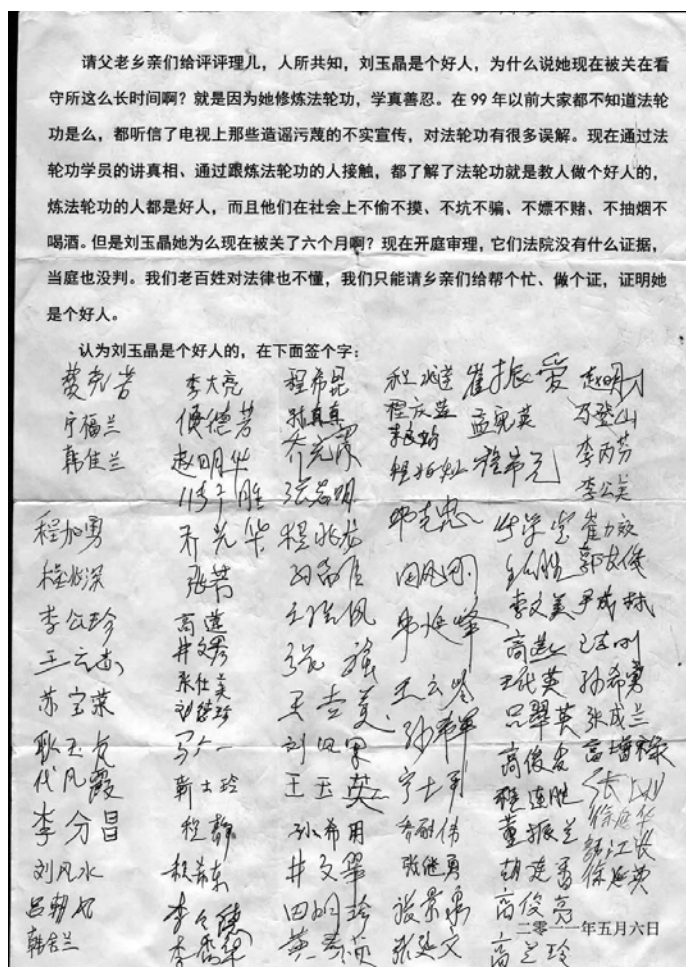


해를 정지할데 관한 활동을 거행했다. 체육문화위원회 주석 마사로선생님이 구정부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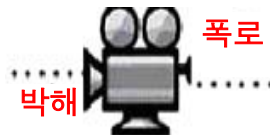
《인류세상의 보편적가치가 있는 찐싼런은 정치를 하는것이 아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이러한 보편적가치는 응당 박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 온 세상의 매 사람마다 반드시 파룬궁을 관심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중지시켜야 할뿐만아니라 널리 전파해야 한다.》

정의로운 촌민들의 서명

산동성 제남시 농촌부녀이며 파룬궁학원인 류옥정은 2010년 11월 16일에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오래동안 불법감금되었다. 2011년 5월 6일에 제남시중구법원에서 개정심의했는데 바깥사람들은 공안국과 법원의 위법에 대해 검거했지만 검찰원에서는 “내부문건”이란 구실로 접수를 거절했다. 이리하여 수백명 촌민들은 일제히 일떠나 서명하여 류옥정은 좋은 사람이라고 전력으로 보호했다. 서명서에는 이렇게 써여져있었다. 《사람들이 알다시피 류옥정은 좋은 사람이다. 왜 그를 간수소에 오래동안 가두고 있는가? 그것은 그가 파룬궁을 수련하고 찌뽀뽀를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 이전엔 여러분들은 파룬궁에 대해 전혀 몰랐다. 텔레비전에서 요언을 날조하여 파룬궁을 모욕하는 선전을 듣고 파룬궁을 오해했다. 지금 파룬궁학원들의 진상이야기를 듣고 파룬궁학원들을 접촉해보니 파룬궁은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고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은 모두 좋은 사람이라는것을 료해했다.》이 편지의 내용은 수많은 농민들의 찬성을 받았으며 그들은 충분히 서명하여 류옥정이 빨리 나오것을 바랬다.



수백명 촌민들이 서명하여 류옥정은 좋은 사람이라고 보호했다.



연변박해소식

- 연길시파룬궁학원 진씨와 김명화(金明花)는 5월 27일 오후 3시경에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박해를 받고 있다.
- 지난 5월 26일, 천하슈퍼부근에서 왕수연(王秀燕)집에서 학습하던 동수들이 랍치되었는데 그중에 두옥매(杜玉梅)가 포함되어있다.
- 5월말, 진문환(陈文焕)집에서 4명의 동수가 랍치되었는데 그중에 류씨가 들어있다.
- 돈화시파룬궁학원 리창화(李昌华)、리창립(李昌立)、류화(刘华)、요숙평(姚淑萍)이 단양파출소 악경들에게 랍치되고 프린트 2대, 컴퓨터 한대, 현금 5천원을 빼앗겼다.
- 지난 5월 29일 오후 4시경, 도문시파룬궁학원 김련화(金莲花)는 주국보대대 악경들에게 랍치되었고 전화기, U디스크, 현금저축카드 등을 몰수당했다. 김련화는 지금 화룡간수소에 갇혀 잔혹한 혹형을 받아 생명이 위독하게 되어 연길시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
- 지난 5월 25일, 연길시법원에서 주희옥(朱喜玉)에게 심판통지서를 보내왔는데 6월 13일에 심판한다고 한다.
- 지난 6월 1일 저녁, 연길시파룬궁학원 박금자(朴今子) 등 7명 동수들이 악경들에게 랍치되었다.
- 지난 6월 1일, 연길시파룬궁학원 리문지(李文智)가 악경들에게 랍치되었다.
-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2일기간에 동계지(董桂芝), 축연문(祝延文) 등이 악경들에게 랍치되었다.
- 지난 6월 1일 오전, 도문시 6종교원이며 파룬궁학원인 왕배충(王培忠)교원은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세뇌반에 갇혔다.
- 지난 5월 28일 오전 10시반경에 길림감옥에 갇힌 연길시파룬궁학원 리광석(李光石)은 악경들이 파견한 범인 손위 등 5명에게 작은 감방에 끌려가 머리를 세면바닥에 짓눌려 피가 터져 피가 났다. 간수대장 조밀은 그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워놓았다.
- 선악에는 보응이 있는 법이다. 파룬따파를 적대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즉각 박해를 멈추고 자신의 생명을 확보하기 바란다.

